

《素問·六微旨大論》에 對한 研究

정동수* 박경** 금경수*** 김남수*

*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 :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진단학교실

*** :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정보학과

ABSTRACT

The contents of *Yuk Mee Jee Dae Ron*(六微旨大論) are as follows.

1. The *Yuk Mee Jee Dae Ron*(六微旨大論) is one of the *Wun Gi Chil Pean*(運氣七篇) which are inserted in *So Moon*(素問) by *Wang Bing*(王冰) who compile the *So Moon*(素問) into 24 volume. *Wun Gi Chil Pean*(運氣七篇) are *Chun Won Ki Dae Ron*(天元紀大論), *O Woon Heng Dae Ron*(五運行大論), *Yuk Mee Jee Dae Ron*(六微旨大論), *Gi kuoo Beun Dae Ron*(氣交變大論), *O Sang Jeong Dae Ron*(五常政大論), *Yuk Won Jeong KI Dae Ron*(六元正紀大論), *Gee Gean Yoo Dae Ron*(至真要大論).
2. It prescribe the *Sa Chun*(司天) · *Jae Chun*(在泉) · *Jwa Gan Gi*(左間氣) · *Woo Gan Gi*(右間氣).
3. It prescribe the *Pheo Gi*(標氣) · *Bon Gi*(本氣) · *Juog Gi*(中氣).
4. It prescribe the *Youk Bo*(六步) and the *Sheung Gi*(承氣).
5. It prescribe the *Harnng Hae Sheung Jae*(亢害承制) which is feedback control system between each *Yuk Gi*(六氣).
6. It prescribe the *Sae whae*(歲會), the *Chun Boo*(天符) and the *Tae Il Chun Boo*(太一天符).
7. It prescribe the active time of *Yuk gi*(六氣) within a year and *Sae gi Whae Dong*(歲氣會同).
8. It prescribe the *Gi Gieo*(氣交) which human beings and all the creation are living on.
9. It prescribe the *Bo*(步) which are composed of *Chun Gi*(天氣) and *Jee Gi*(地氣).
10. It prescribe the *Duk*(德) *Wha*(化) *Yooung*(用) *bean*(變) which are created by quarrel of *Yuk Gi*(六氣).
11. It prescribe the outbreak of the *Sa Gi*(邪氣).
12. It prescribe the *Sin Gi*(神機) and *Gi Rib*(氣立).
13. It prescribe all the creations existence are up to the *Seoung Gang Chul Ip*(升降出入).
Like the past, the *Yuk Mee Jee Dae Ron*(六微旨大論) is include very important concep of the medicine. So the study should be continued with minute attention.

Key Word : *Sa Chun*(司天), *Jae Chun*(在泉), *Pheo Gi*(標氣), *Bon Gi*(本氣), *Juog Gi*(中氣)

접 수 : 2000년 4월 27일

채 택 : 2000년 5월 5일

교신저자 : 정동수,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0653-850-6839)

I. 緒論

「六微旨大論」의 六은 風·火·熱·濕·燥·寒의 六氣를 가리키고, 微旨는 지극히 精하고 微細한 趣旨라는 意味이며, 六氣 運動變化의 規則과 原理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였기 때문에 篇名을 『六微旨大論』이라고 하였다.¹⁾

本編은 全元起가 註釋한 아홉권으로 된 《素問》을 王冰이 24권으로 編述할 때에 「天元紀大論」, 「五運行大論」, 「氣交變大論」, 「五常政大論」, 「六元正紀大論」, 「至眞要大論」과 함께 補入된 것으로 이들은 「運氣七編」이라 불리우며²⁾, 《類經》³⁾에는 23卷 運氣類 6章의 「天地六六之節 標本之應 亢則害承乃制」, 24卷 運氣類 7章의 「天符歲會」, 8章의 「六步四周 三合會同 子甲相合 命曰歲立」, 9章의 「上下升降 氣有初中 神機氣立 生化爲用」 등에 나뉘어 기재되어 있다.

本篇의 內容을 살펴보면 먼저 天氣의 三陰三陽이 六節에 따라 變化하는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에 따라 標氣·本氣·中氣가 規定되는 것을 論하였다. 다음으로 六氣가 地理에 따라 作用하는 順序를 설명하고, 六氣의 變化過程을 亢害承制의 理論으로써 설명하였다. 그리고 歲運과 主氣의 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天符와 歲位와 太一天符를 설명하고, 이러한 運과 氣의 관계가 人體에 어떠한 영향을 주어 疾病을 發生하게 하는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계속하여 一步·一氣의 期間과 六氣가 각각 活動하는 時刻을 나열하였으며, 天氣와 地氣가 升

降하는 過程에서 變化가 생기는 理致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氣의 升降出入이 가지는 意義와 정상적인 運用의 重要性을 神機와 氣立의 生存方式을 糾明하는 것으로써 설명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運氣學에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일뿐 아니라 醫學의 基礎理論體系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는 것이며, 本篇은 이러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현존하는 最古의 文獻이므로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本篇의 뜻이 너무 難解하고 古文으로 되어 있으며, 글이 省略되어 있고 用語등이 쉽게 解讀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본래의 趣旨를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各家의 註釋을 比較하여 본 뜻에 맞게 意味를 밝혀내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하였다.

II. 研究方法 및 資料

本 篇을 내용별로 4장으로 나누었고 原文과 各家의 註釋에는 읽고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吐를 달았으며, 校勘·較註·考察·直譯·意譯·結語의 順序로 연구하였다.

- 가. 原文은 《聚珍倣宋版印本》을 低本으로 하였고, 章節의 분류에는 任⁴⁾의 《黃帝內經章句索引》과 張⁵⁾의 《類經》, 程⁶⁾의 《素問註釋匯粹》를 참고하였다.
- 나. 懸吐는 傳來의 懸吐方式를 原則으로 하였고, 되도록 現代化하려고 노력하였다.

1) 王琦 外, 《黃帝內經素問今釋》, 成輔社, 서울, p.324, 1983.
 2) 龍伯堅著 白貞義·崔一凡共譯, 《黃帝內經概論》, 논장, 서울, p.26~39, 1990.
 3) 張介賓, 《類經》, 大星文化社, 서울, 1990.

4)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6.
 5) 張介賓, 《類經》, 大星文化社, 서울, 1990.
 6) 程士德, 《素問註釋匯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 다. 校勘에 인용한 書目은 <圖表.1>과 같다.
- 라. 較註는 <圖表.2>의 11種 자료의 註釋들에서 내용이 유사한 것을 모았으며, 모은 注釋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진 것을 중심으로 國譯하고, 注釋의 原文들은 脚註로 처리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마. 直譯은 文法에 충실하도록 하였다.
- 바. 本 研究에 사용한 符號는 校勘에 ‘),’ 字句解에 ‘()’, 較註에 ‘[]’, 引用文獻에 ‘〈〉’, 引用篇과 論文에 ‘|’로 표시하였으며, 脚註는 ‘1), 2), 3)……’의 일련번호로 표시하였고, 註釋의 구분에 ‘○’를, 較註과정에서 중점적으로 翻譯한 註釋에는 ‘●’를 사용하여 표시하였다.

圖表.1 研究資料

번호	註釋家	時代	書名	略稱
1	王冰	唐	黃帝內經素問	王
2	馬蒔	明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馬
3	吳	明	黃帝內經素問吳註	吳
4	張介賓	明	類經	景岳
5	張志聰	清	素問集註	張
6	高世栻	清	素問直解	高
7	姚止庵	清	素問經註節解	姚
8	山東中醫學院	1958	黃帝內經素問譯解	傑
9	王琦等	1980	黃帝內經素問今釋	今釋
10	山東中醫學院	1980	黃帝內經素問校釋	校釋
11	方藥中外	1984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講解

圖表.2 校勘에 引用한 文獻 및 略稱

번호	書名	略稱	備考
1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發微	
2	黃帝內經素問吳註	吳註本	
3	類經	類經	
4	素問直解	直解	
5	素問經註節解	節解	
6	黃帝內經素問譯解	譯解	
7	黃帝內經素問今釋	今釋	
8	元至元五年胡氏古林書堂刻本	胡本	《黃帝內經素問校釋注語譯》에서 引用하였슴.
9	元讀書堂刻本	讀本	
10	守山閣刊本	守校本	
11	明嘉靖間金谿吳悌校刊本	吳本	
12	明嘉靖間越簡王朱厚居敬堂刊本	越本	
13	明萬曆四十三年朝鮮內醫院刻本	朝本	
14	涵芬樓影印明正統道藏書	藏本	

Ⅲ. 研究內容

第 1章. 天氣의 六節과 標·本·中氣

【原文】

黃帝 問曰嗚呼遠哉라 天之道也는 如迎浮雲하고 若視深淵이로다 視深淵은 尙可測이나 迎浮雲은 莫知其極이로다 夫子數言謹奉天道하니 余聞而藏之나 心私異之하야 不知其所謂也라 願夫子溢志盡言其事하시면 令終不滅하고 久而不絕하리니 天之道를 可得聞乎잇가

岐伯이 稽首再拜하고 對曰明乎哉라 問天之道也시여 此는 因天之序하야 盛衰之時也니이다

帝 曰願聞天道六六之節盛衰는 何也오

岐伯이 曰上下有位하고 左右有紀 故로 少陽之右는 陽明治之요 陽明之右는 太陽治之요 太陽之右는 厥陰治之요 厥陰之右는 少陰治之요 少陰之右는 太陰治之요 太陰之右는 少陽治之라 此所謂氣之標니 蓋南面而待之也라 故로 曰因天之序 盛衰之時는 移光定位호대 正立而待之라하니 此之謂也라 少陽之上은 火氣治之하고 中見厥陰하며 陽明之上은 燥氣治之하고 中見太陰하며 太陽之上은 寒氣治之하고 中見少陰하며 厥陰之上은 風氣治之하고 中見少陽하며 少陰之上은 熱氣治之하고 中見太陽하며 太陰之上은 濕氣治之하고 中見陽明하니 所謂本也라 本之下에 中之見也요 見之下는 氣之標也¹⁾니 本標不同하야 氣應異象이니이다

帝 曰其有至而至와 有至而不至와 有至而太過는 何也오

岐伯이 曰至而至者는 和요 至而不至는 來氣不及也요 未至而至는 來氣有餘也니이다

帝 曰至而不至와 未至而至는 如何오

岐伯이 曰應則順이요 否則逆이니 逆則變生

하고 變生則病이니이다

帝 曰善타 請言其應하노이다

岐伯이 曰物生其應也요 氣脈其應也니이다

【校勘】

1)所謂本也 本之下 中之見也 見之下 氣之標也; 譯解에는 이 句節이 없다.

【考察】

“因天之序 盛衰之時也”라는 原文에서 盛衰의 主體에 대한 註釋家들의 異見이 있다. 張은 盛衰가 六氣의 太過와 不及이라고 하였고, 今釋은 季節의 變化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른 註釋家들은 盛衰의 主體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本篇의 篇題가 「六微旨大論」으로서 六氣의 盛衰變化를 설명하고 있으며, 뒷글에서 天道와 地理의 變化에 따른 六氣의 變化와 상호간의 關係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문장에서의 盛衰는 六氣의 盛衰로 봄이 옳다. 다만 이러한 六氣의 盛衰變化가 계절의 變化로서 우리에게 드러나기 때문에 今釋의 주장도 틀리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六六之節”에 대하여 高는 1년 360일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馬·張·姚는 하늘의 六氣가 사람의 三陰三陽과 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六六之節’을 1년으로 보는 견해는 《素問·六節藏象論》에서 처음 나온다. 「六節藏象論」은 “하늘은 六六의 節로 한 해를 이룬다.”, “天에는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의 10일이 있으니 60일에 甲子의 數가 한번 돌고 甲子가 6번 돌아서 다시 始作하니 곧 한 해의 날수를 마치는 것이다. 이것은 360일로 한해를 삼는 법이고 天度의 數는 아니다.”라고 하여 六六之節이 1년 365日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

고 있다. 그러나 「六節藏象論」에서도 “天은 地球의 外部를 감싸고, 地는 天의 가운데 位置하며 天은 動的이고 地는 靜의이며 乾은 健하며 坤은 順하므로 天은 陽, 地는 陰이 되고, 火의 精은 太陽, 水의 精은 달이 되므로 太陽은 陽, 달은 陰이 되니 日月의 運行에 分野와 度數가 있고 日月이 하늘을 運行하는 것이 南道·北道の 道路가 있으니 매 해에 冬至와 夏至에는 太陽이 南道와 北道사이를 運行하고 매 월의 上弦, 下弦에는 달이 南道와 北道 사이를 運行하는 것이다. 日月이 서로 運行하는 것은 모두 東에서 西로 運行하는데 天體의 運行은 빠르나 太陽의 運行은 느리고, 달의 運行은 더욱 느리며 天體는 지극히 둥글어서 地球를 左側으로 旋回하여 항상 하루에 한바퀴를 돌며 太陽은 1°를 運行하고 太陽의 運行은 느리니 또한 하루에 地球 周圍를 一周하나 天體에 比하면 1° 적게 運行하므로 365日과 25刻이 累積되면 다시 옛날의 장소로 돌아와 天體와 交會하니 이것이 한해가 된다. 달의 運行은 더욱 느려서 또한 하루에 地球 周圍를 一周하나 天體에 比하면 13°와 7/19° 不足하니 27일 남짓 累積되면 天體와 交會하니 이것이 1月이다. 그러므로 해는 한 해에 하늘을 한바퀴 돌고 달은 29일 남짓에 한바퀴를 돌아서 29일 남짓이 있기 때문에 大小月이 있는 것이다. 매 해에 朔虛가 5일 남짓이 있으므로 354일에 그치고 또 氣盈이 5일 남짓이 있어서 氣盈과 朔虛가 配合되어 閏이 생기므로 매해에 閏이 계속하여 모두 365일 남짓이 되고 한 해는 360일로 常數를 삼으나 달이 太陽보다 적게 運行하므로 매 해가 354日과 37刻에 그쳐서 12번의 초하루와 보름으로 다 마치는 것이다. 이것은 한 해를 一周하는데

달이 太陽에 미치지 못하니 5日과 63刻이 朔虛가 된다. 太陽은 또 天보다 적게 運行하므로 天을 一周하는 數는 모두 365° 1/4°로 이것은 한해를 一周하는데 天은 太陽보다 더 도는 것이니 5日과 25刻으로 氣盈을 삼아서 氣盈과 朔虛를 배합하면 모두 10日 88刻이 된다. 이것은 한 해에 氣餘의 數로 閏이 생기는 것이므로 3년으로 計算하면 32日과 64刻으로 이것은 한번 윤달을 두고서도 2日 64刻이 남습니다.”라고 하여 1년이 365일여가 됨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六六之節의 六六이 반드시 1년 360일을 가리킨다고 할 수 없으며, 본편에 이어져 나오는 내용들이 1년의 日數에 대한 것 보다는 三陰三陽과 六氣의 상호관계에 치중되어 있는 점을 볼 때 六六之節의 의미는 “六氣와 三陰三陽의 變化規則”으로 보는 것이 옳다.

‘上下有位左右有紀’에 대하여 高의 註釋은 앞의 ‘六六之節盛衰’에 대한 註釋과 연계되어 1년중의 변화에만 국한되어지는 측면이 있으나, ‘上下’가 司天과 在泉을, ‘左右’가 左右 間氣를 의미한다는 기본적인 견해에는 여러 주석가와 일치하고, 在泉의 左間이 加臨하는 六氣의 처음이 된다는 것도 일치하고 있으므로 글로는 한 해를 의미하지만 내용으로는 모든 해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氣之標 蓋南面而待之也 故曰因天之序 盛衰之時 移光定位 正立而待之’의 ‘標’에 대한 註釋에서 高를 제외한 모든 註釋家들은 六氣와 三陰三陽의 관계에 있어서의 標와 本을 들어 註釋하였으나, 高는 앞의 구절에서 “少陽之右 陽明治之 陽明之右 太陽治之……”라고하여 少陽으로부터 설명한 것이 厥陰을 六氣의 시작으로 보았을 때 在

泉을 위주로 설명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標와 本을 규정하였다. 즉 “위에 있는 것은 本이고, 아래에 있는 것은 標가 된다.”라고 하여 在泉이 아래에 있는 것이고, 앞 구절이 在泉을 들어 설명한 것이므로 ‘氣之標’라고 하였다고 註釋하였다. 그러나 이 ‘標’는 바로 뒷 문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남쪽을 바라보고 살필 수 있는 것을 가리키므로 在泉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뒷글에서 ‘本’과 ‘中氣’와 ‘標’를 들어 기후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때에도 ‘在泉’만으로 국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여기서의 ‘氣之標’는 앞글에서 말한 三陰三陽이 六氣의 標가 된다는 의미로 보는 다른 註釋家들의 註釋이 옳다고 본다.

六氣의 標와 中氣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少陽之上 火氣治之 中見厥陰……所謂本也 本之下 中之見也 見之下 氣之標也’의 규정에 대한 註釋家들의 이견은 없다. 그러나 그렇게 규정되는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姚는 다른 註釋家들의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그것은 景岳이 中氣를 규정하면서 “少陽이 厥陰과 表裏가 되므로 厥陰이 中氣가 되고, 이 때문에 相火의 작용과 겹하여 風木의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방식으로 설명한데서 비롯된다. 姚는 景岳이 ‘互根之中氣’라고 한 것을 비판하였다. 氣는 실존하는 中氣가 아니라 本과 標가 작용하는 중간에 드러나지는 기운을 中氣라고 생각하였으며, 景岳이 中氣를 그 자체로 존재하여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姚가 標·本·中氣의 작용을 臟腑의 관계에 너무 집착하여 설명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兩者間에 설명 방식에 차이가 있을뿐 標·本·中氣의 규정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論爭의 의미

는 없다고 생각된다.

‘應則順 否則逆 逆則變生 變生則病’의 註釋에서 王·馬·吳·景岳·高·姚·傑·今 釋은 六氣의 到來가 너무 늦거나 빠른 것으로서 順逆을 삼았으나, 張은 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즉 六氣가 不及歲에 늦게 오는 것과 有餘歲에 빨리오는 것을 順으로 보았고, 不及歲에 정상적으로 오는 것과 有餘歲에 정상적으로 오는 것을 逆으로 보았다. 바로 구절에서 時令과 六氣의 一致 및 不一致를 들어 六氣의 有餘와 不及을 설명하였으므로 한 해의 有餘不及과 六氣의 有餘不及을 관련지은 張의 註釋을 문의상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張의 주장대로 한다면 不及歲의 大寒일 이후에 風木의 기운이 나타나는 ‘至而至’, 즉 和의 경우가 옳아 된다는 것인데 이는 앞글의 내용을 뒤집는 것이다. 不及歲와 有餘歲를 막론하고 節氣에 맞는 六氣의 到來를 順으로 보고, 節氣에 앞서거나 뒤서는 六氣의 到來를 否로 보는 것이 옳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아! 深遠하도다 하늘의 이치여!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올려다보는 것 같고, 깊은 연못을 굽어보는 것 같도다. 깊은 연못은 오히려 그 깊이를 잴 수 있으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그 끝을 알 수 없도다! 선생님께서 신중하게 하늘의 이치를 받들어야 한다고 자주 말씀하셔서 들어 간직하였으나 내 생각과는 달라서 말씀하시는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충만한 뜻으로 그것에 대하여 모두 말씀해주셔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오래도록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오니 하늘의 이치를 얻어 들을 수 있겠습니까?

岐伯이 머리를 조아려 두 번 절하며 대답하기를 밝기도 하십니다. 天道에 대한 물음이며! 이는 天地 變化의 순서에 따라 盛衰하는 시기입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天道가 六六節로 盛衰하는 것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岐伯이 대답하기를 上·下로 位가 있고 左·右로 紀가 있기 때문에 少陽의 다음(右)은 陽明이, 陽明의 다음(右)은 太陽이, 太陽의 다음(右)은 厥陰이, 厥陰의 다음(右)은 少陰이, 少陰의 다음(右)은 太陰이, 太陰의 다음(右)은 少陽이 다스립니다. 이들을 氣의 標라고 하니 남쪽을 향하여 살핍니다. 그래서 “日光의 이동으로 자리를 정하되 定立하여 기다린다.”라고 한 것은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少陽의 上은 火氣가 다스리고 中에는 厥陰이 나타나며, 陽明의 上은 燥氣가 다스리고 中에는 太陰이 나타나며, 太陽의 上은 寒氣가 다스리고 中에는 少陰이 나타나며, 厥陰의 上은 風氣가 다스리고 中에는 少陽이 나타나며, 少陰의 上은 熱氣가 다스리고 中에는 太陽이 나타나며, 太陰의 上은 濕氣가 다스리고 中에는 陽明이 나타나니 이를 本이라 합니다. 本의 아래에 中이 나타나며 中이 나타난 下는 氣의 標이니, 標와 本이 다르므로 氣가 應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至而至와 至而不至와 至而太過는 어떻습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때맞춰 기가 온 것은 和이고, 때가 되었는데 기가 오지 않은 것은 와야할 氣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때가 되었는데 기가 온 것은 와야할 氣가 먼저 온 것입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至而不至와 未至而至는 어떤 것입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應하는 것이 順이고 응하지 않는 것이 逆이니 逆이 되면 氣候에 變化가 발생하고, 氣候에 變化가 발생하면 病이 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습니다. 그 應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岐伯이 대답하기를 物生이 그것에 應하는 것이고, 氣脈이 그것에 應하는 것입니다.

第 2章. 六氣의 位置와 亢害承制 및 運氣會同

【原文】

帝曰善타 願聞地理之應六節氣位는 何如오
岐伯이 曰顯明之右는 君火之位也니 君火之右에 退行一步면 相火治之하고 復行一步면 土氣治之하고 復行一步면 金氣治之하고 復行一步면 水氣治之하고 復行一步면 木氣治之하고 復行一步면 君火治之¹⁾라 相火之下去 水氣承之하고 水位之下去 土氣承之하고 土位之下去 風氣承之하고 風位之下去 金氣承之하고 金位之下去 火氣承之하고 君火之下去 陰精承之하노이다

帝曰何也오

岐伯이 曰亢¹⁾則害요 承迺²⁾制니 制則生化¹⁾⁽³⁾하야 外列盛衰하고 害則敗亂하야 生化大病이니이다

帝曰盛衰는 何如오

岐伯이 曰非其位則邪요 當其位則正이니 邪則變甚하고 正則微하니이다

帝曰何謂當位오

岐伯이 曰木運臨⁴⁾卯와 火運臨午와 土運臨四季와 金運臨酉와 水運臨子를 所謂歲會니 氣之平也니이다

帝曰非位는 何如오

岐伯이 曰歲不與會也니이다

帝曰土運之歲에 上見太陰과 火運之歲에

上見少陽少陰과 金運之歲에 上見陽明과 木運之歲에 上見厥陰과 水運之歲에 上見太陽은 奈何오

岐伯이 曰天之與會也²⁾니 故로 天元冊에 曰天符라하노이다

天符歲會는 何如오

岐伯이 曰太一天符³⁾之會也니이다

帝 曰其貴賤은 何如오

岐伯이 曰天符爲執法⁵⁾이요 歲位⁴⁾爲行令⁶⁾이요 太一天符爲貴人⁷⁾이니이다

帝 曰邪之中⁸⁾也는 奈何오

岐伯이 曰中執法者는 其病速而危하고 中行令者는 其病徐而持하고 中貴人者는 其病暴而死이니이다

帝 曰位之易也는 何如오

岐伯이 曰君位臣則順이요 臣位君則逆이니 逆則其病近하고 其害速하며 順則其病遠하고 其害微니 所謂二火也니이다

【校勘】

- 1) 君火治之 相火之下; 吳註本에는 “君火治之 君火以明 相火以位 相火之下”로 되어 있다.
- 2) 制則生化; 類經·吳註本·節解에는 ‘制生則化’로 되어 있고, 語譯은 “胡本·讀本·越本·吳本·藏本에 ‘制生則化’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 3) 天之與會也; 吳註本에는 ‘天與之會也’로 되어 있다.
- 4) 太一天符; 發微·直解에는 ‘太乙天符’로 되어 있다.
- 5) 歲位; 發微·直解에는 ‘歲會’로 되어 있다.

【考察】

‘非其位則邪 當其位則正 邪則變甚 正則微’에 대하여 馬·景岳·張·高·傑은 氣가

有餘하거나 不及한 것을 ‘非其位’로 보았으나, 今釋은 ‘位’를 十二地支가 땅에 분포하는 방향의 위치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東·西·南·北·中央의 다섯 방위에 속하지 않는 寅申巳亥의 네 地支를 ‘非其位’라고 하였다. 今釋의 말대로라면 寅申巳亥의 地支를 갖는 해에는 여타의 상황을 막론하고 氣候의 변화가 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수궁하기 어렵다. 이 구절은 「五運行大論」의 末尾에 똑같이 언급되어 있는데, 今釋의 그곳에 대한 해석에서는 “五氣가 마땅히 다스리는 時間과 位置가 아닌데 출현하면 邪氣가 되고, 반대로 氣候와 時令이 서로 같으면 정상적인 氣가 된다.”라고 하여 이곳의 설명과 자못 다르다. 앞글에 六氣의 太過와 不及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뒷글에서 主運과 地支의 五行屬性이 같고 다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氣候의 변화를 論述하고 있음을 볼 때 邪氣를 寅申巳亥의 네 地支로만 규정할 수는 없다. ‘非其位’와 ‘當其位’의 ‘位’는 ‘方位’를 가리키기보다는 ‘役割’을 의미한다고 보아서, 六氣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경우를 ‘當其位’, 그렇지 못한 경우를 ‘非其位’로 보는 馬·景岳·張·高·傑 등의 견해가 옳다고 본다.

景岳의 註釋중에 王安道の 글을 인용한 부분이 있다. 이 글은 亢害承制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본문을 이해하는데 자못 도움이 되므로 여기에 그 해석을 싣는다.

王安道는 “내가 《內經》을 읽어 ‘亢則害 承迺制’에 이르러 탄식하여 말하기를 지극 하구나 造化의 굴레여! 王氷이 앞에서 펴고 후에 劉河間이 널리 펼쳤으니 聖人의 理致가 위태하게 쓰러질 듯 전하여졌구나! 그러나 학자들이 풀이하지 못하여 의미가 완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이해하니 그 뜻을 밝힌다. ‘顯明之右’로부터 ‘君火治之’까지 15句는 六節이 다스리는 位置를 말한 것이고, ‘相火之下’로부터 ‘陰精承之’까지의 12句는 地理가 歲氣와 互應하는 것을 말하였고, ‘亢則害 承迺制’의 세 구절은 지나친 것을 抑制한다는 것이고, ‘制則生化’부터 ‘生化大病’의 네 구절은 制約이 된 정상상태와 制約하지 못하여 변화가 생긴 것을 설명하였다. ‘承’은 ‘隨’인데 ‘隨’字를 쓰지 않고 ‘承’자를 쓴 것은 뒤의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앞의 것을 중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承’이라고 한 것이니, ‘承’이라고 하였으나 견제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亢’은 지나치게 旺盛한 것이고, ‘害’는 사물에 피해를 준다는 것이고, ‘制’는 지나친 것을 克制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뒤에 따르는 기운은 앞의 기운이 極하지 않으면 따르기만 할 뿐이니 따르되 드러나지는 않으나 앞의 기운이 亢盛하면 亢盛된 기운을 克制하니 여기에서 뒤따르는 기운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기운을 맞이하지만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고, 관찰해 보아도 그 머무는 곳을 알 수 없으니,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고, 아득하고 묘한 곳에 항상 있지만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河間이 말하였다. 亢盛한 것이 지나치면 반대로 자기를 이기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은 형질을 가진 것으로 알아볼 수 있다. 뒷편의 厥陰이 이르르니 風이 생하고 肅殺하는 기운이 나오며, 少陰이 이르르면 熱이 생하고 肅殺하는 기운이 나오며, 寒氣가 닳친다는 것에서 風이나 熱이 생긴다는 것은 ‘亢’에 속하고, 肅殺하는 기운이나 寒氣가 닳치는 것은 ‘制’라고 할 수 있다. 또한 水氣가 發動하면

우박과 눈이 내리고 土氣가 發動하면 거친 바람이 분다는 것에서 水氣와 土氣가 發動하는 것은 ‘亢’에 속하고, 우박과 눈과 바람은 ‘制’에 속한다. 이러한 것들은 造化의 常道이니 亢極하지 않으면, 억제할 수도 없는 것이다. 虞天民이 말하였다. ‘制’는 氣가 太過함을 制約한다는 것이고, ‘害’는 뒤따르는 기운의 元氣를 해친다는 것이니, 元氣라는 것은 종합하여 말하면 ‘一元’이라고 할 수 있으니 天一은 水를 생하고 水는 木을 생하고 木은 火를 생하고 火는 土를 생하고 土는 金을 생하고 金은 다시 水를 생하여 끝없이 순환하여 쉼이 없는 것이고, 나누어 말하면 六元이니 水가 木이 생겨나는 근원이 되고 木이 火가 생겨나는 근원이 되고 火가 土가 생겨나는 근원이 되고 土가 金이 생겨나는 근원이 되고 金이 水가 생겨나는 근원이 되는 것이니 역시 끝없이 運化하는 것이다. 가령 火가 亢盛하지 않으면 뒤따르는 水가 따르기만 할 뿐이나 일단 亢盛하게 되면 그 水氣가 일어나 가라앉게 하니 이는 水의 元氣가 되는 金을 해칠까 두려워하여서 子가 와서 母를 구원하는 뜻이 되는 것이다. 六氣가 모두 그러하니 이는 五行이 서로 이기고 지는 이치가 그러하고자 해서 그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것으로 보면 天地 萬物이 五行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으니 어찌 亢害承制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겠는가! 따라서 사람에게서 살펴보면 五臟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五志가 서로 이기고 五氣가 서로 변화하고 五病이 서로 변화하는 것이므로 火氣가 極하면 寒氣가 생겨나고, 寒氣가 極하면 濕氣가 생겨나고, 濕氣가 極하면 風氣가 생겨나고, 風氣가 極하면 燥氣가 생겨나고, 燥氣가 極하면 熱氣가 생겨나니 모

두 그러한 변화인 것이다. 天地에서 承制하는 順序는 自然의 氣化에서 나와서 사람에게 있어서도 역시 있는 것이니 피하고 돌려 운용하면 得失이 있는 것이다. 그 精微로운 것을 알고 그 이치를 깨달으면 나에게 있는 것이니 어떠한 해로움이 있겠는가 마는 承制의 盛衰에 밝지 못하여 眞假를 판단하지 못하면 敗亂이 닥쳐오게 된다. 아는 사람은 이에 신중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습니다. 地理가 六節氣位와 상응하는 것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岐伯이 대답하기를 顯明의 右는 君火의 위치이니 君火의 右에 일보 물러서면 相火가 主治하고 다시 一步를 물러서면 土氣가, 다시 一步 물러서면 金氣가, 다시 一步 물러서면 水氣가, 다시 一步 물러서면 木氣가 다시 一步 물러서면 君火가 主治합니다. 相火의 다음에 水氣가 이어지고, 水位의 아래에 土氣가, 土位의 아래에 風氣가, 風位의 아래에 金氣가, 金位의 아래에 火氣가, 君火의 아래에 陰精이 이어집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째서 입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너무 亢盛하면 害를 주고 害입은 것을 잇는 기가 너무 亢盛한 氣를 制壓하니 制壓하면 生化하여 밖으로 盛衰가 드러나고, 害를 입으면 무너지고 혼란하여 生化가 심하게 병들게 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盛衰는 어떻습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六氣가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邪氣가 되고, 제자리에 있으면 正氣가 되니, 邪氣는 變異가 심하고 正氣는 미

미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것을 제자리라고 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木運에 卯가, 火運에 午가, 土運에 辰·戌·丑·未가, 金運에 酉가, 水運에 子가 加臨하는 것을 歲會라고 하니 平氣입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리가 아닌 것은 어떻습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그 해에 그 氣가 會合하지 않는 것입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土運인 해에 太陰이, 火運인 해에 少陽·少陰이, 金運인 해에 陽明이, 木運인 해에 厥陰이, 水運인 해에 太陽이 司天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五運과 歲氣가 합치되므로 「天元紀大論」에 天符라고 하였습니다.

天符歲會는 어떤 것입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太一天符의 會合이라고 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貴賤은 어떠 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天符는 執法이, 歲會는 行令이, 太一天符는 貴人이 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邪氣의 침입은 어떻습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執法에 침입하면 發病이 빠르고 危重하고, 行令에 침입하면 그 病의 발생이 느리고 오래가며, 貴人에 침입하면 病이 갑자기 발생하여 죽게 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位가 바뀌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君이 臣의 位에 있으면 順이고, 臣이 君의 位에 있으면 逆이니, 逆이 되면 發病하는 것이 빠르고 病勢는

심하며, 順이 되면 발병하는 것이 느리고 病勢는 미약하니 君火와 相火의 경우를 말한 것입니다.

第 3章. 六氣의 終始

【原文】

帝曰善타 願聞其步⁽¹⁾는 何如오
 岐伯이 曰所謂步者는 六十度而有奇⁽²⁾ 故로 二十四步에 積盈百刻而成日也니이다
 帝曰六氣應五行之變은 何如오
 岐伯이 曰位有終始하고 氣有初中하야 上下不同하니 求⁽³⁾之亦異也니이다
 帝曰求之는 奈何오
 岐伯이 曰天氣始於甲하고 地氣始於子하니 子甲相合을 命曰歲立이라 謹候其時하면 氣可與⁽⁴⁾期니이다
 帝曰願聞其歲六氣始終早晏⁽⁵⁾은 何如오
 岐伯이 曰明乎哉라 問也시여 甲子之歲에 初之氣는 天數始於水下一刻하야 終於八十七刻半하고 二之氣는 始於八十七刻六分하야 終於七十五刻하고 三之氣는 始於七十六刻하야 終於六十二刻半하고 四之氣는 始於六十二刻六分하야 終於五十刻하고 五之氣는 始於五十一刻하야 終於三十七刻半하고 六之氣는 始於三十七刻六分하야 終於二十五刻하니 所謂初六天之數也라 乙丑歲에 初之氣는 天數始於二十六刻하야 終於一十二刻半하고 二之氣는 始於一十二刻六分하야 終於水下百刻하고 三之氣는 始於一刻하야 終於八十七刻半하고 四之氣는 始於八十七刻六分하야 終於七十五刻하고 五之氣는 始於七十六刻하야 終於六十二刻半하고 六之氣는 始於六十二刻六分하야 終於五十刻하니 所謂六二天之數也라 丙寅歲에 初之氣는 天數始於五十一刻하야 終於三十七刻半하고

二之氣는 始於三十七刻六分하야 終於二十五刻하고 三之氣는 始於二十六刻하야 終於一十二刻半하고 四之氣는 始於一十二刻六分하야 終於水下百刻하고 五之氣는 始於一刻하야 終於八十七刻半하고 六之氣는 始於八十七刻六分하야 終於七十五刻하니 所謂六三天之數也라 丁卯歲에 初之氣는 天數始於七十六刻하야 終於六十二刻半하고 二之氣는 始於六十二刻六分하야 終於五十刻하고 三之氣는 始於五十一刻하야 終於三十七刻半하고 四之氣는 始於三十七刻六分하야 終於二十五刻하고 五之氣는 始於二十六刻하야 終於一十二刻半하고 六之氣는 始於一十二刻六分하야 終於水下百刻하니 所謂六四天之數也라 次戊辰歲에 初之氣는 復始於一刻하야 常如是無已하야 周而復始하노이다

帝曰願聞其歲候는 何如오
 岐伯이 曰悉乎哉라 問也여 日行一周에 天氣始於一刻하고 日行再周에 天氣始於二十六刻하고 日行三周에 天氣始於五十一刻하고 日行四周에 天氣始於七十六刻하고 日行五周에 天氣復始於一刻하니 所謂一紀也라 是故로 寅午戌歲氣會同하고 卯未亥歲氣會同하고 辰申子歲氣會同하고 巳酉丑歲氣會同하야 終而復始하노이다

【考察】

3장은 六氣의 작용시각을 의미하는 步에 대한 설명과 六氣에 初氣와 中氣가 있어서 上半年과 下半年을 주관하는 이치, 각 해에 여섯 步가 접하는 시각 및 그 시각의 공통점으로써 紀가 규정되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표현이 중복되어 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간략히 정해 보았다.

1년동안에 六氣가 돌아가면서 한번씩 작

용하기 때문에 六氣中에 하나가 작용하는 시각은 1년 365.25일을 여섯으로 나눈 60.875일이며 이것이 1步가 점하는 시각이다.

六氣에는 上半年을 주관하는 在泉 左間의 初氣와 下半年을 주관하는 司天 左間의 中氣가 있어서 司天과 在泉이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初氣와 中氣가 바뀌게 되는데, 1년의 時令을 주관하는 五行은 厥陰風木·少陰君火·少陽相火·太陰濕土·陽明燥金·太陽寒水의 순서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의 변화를 추정하는 일도 역시 해마다 다르게 됨을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十干과 十二支의 배합으로 각 해를 구분하고 그에 따라서 六氣가 작용하는 시각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즉 최초의 甲子歲에 初氣가 1刻에서 시작하여 60일 후의 87.5刻에 끝나는 것을 앞의 60일을 빼고 87.5각에 끝난다는 식으로 표현하여 4년간, 즉 24步 각각의 시각을 표시하였다. 이런 식으로 추산하면 5년째 戊辰歲의 初氣는 다시 최초 甲子歲 初氣의 시각과 일치하게 되어 이후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4년을 한 週期로 삼게 되었고, 이 週期를 紀라는 용어으로써 구분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따져 보면 地支에 寅午戌이 들어가는 해에는 六氣의 시작하고 끝나는 시각이 서로 같게 되고, 卯未亥歲·申子辰歲·巳酉丑歲에 六氣의 시작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이 각각 같게 된다. 이것을 命理學에서는 三合이라고 하여 중시하고 있다.

이상은 3장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水下一刻’은 漏下百刻法이라고 불리우는 고대의 시간측량방법에서의 1刻을 의미한다. 漏下百刻法은 항아리의 측면에 일정한 백개의 標識을 하고 물을 채운 다음, 바닥

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통해 물이 빠져 나가면서 수면이 낮아지는 것에 따라 드러나는 標識의 수치로서 시간을 규정하는 방법이다. 구멍의 크기는 물이 조금씩 빠져 나가서 모두 빠져 나가는 데 하루가 걸릴 수 있도록 맞추고, 標識은 처음 수면으로부터 바닥에 이르기 까지 백칸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漏下百刻法은 하루를 100刻으로 나누어 측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24시각제로 환산해 보면 1각이 14.4분임을 알 수 있다. 註釋家들의 시대에는 이 漏下百刻法에 의한 하루를 100刻의 시각법 보다는 十二時辰으로 하루를 나누는 시각법을 사용하였다. 즉 현대의 두시간에 해당하는 각 時辰이 열두개 모여 하루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 각 時辰들은 地支의 명칭을 빌어서 子時·丑時·寅時·卯時·辰時……酉時·戌時·亥時로 표시하였다. 송대 이후에 각 時辰은 다시 兩分되어서 初·正이라는 명칭이 붙어 분리되었는데, 즉 앞의 반시진에 初를 붙이고 뒤의 반시진에 正을 붙여 구별하는 방법이다. 그리하여 子時初·子時正·丑時初·丑時正……등으로 구분하게 되었고, 이 본문의 註釋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법이 사용되었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습니다. 그 步는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岐伯이 대답하기를 步라고 하는 것은 60度 하고도 나머지가 있으므로 24步에 나머지가 쌓여 100刻을 채워 하루가 됩니다.

黃帝께서 물으시기를 六氣가 五行의 변화에 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位에는 終·始가 있고 氣에는 初·中이 있어서, 위와 아래가 같지

않으니 계산하는 것도 역시 다릅니다.

黃帝께서 물으시기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天氣는 甲에서, 地氣는 子에서 시작하니 甲과 子가 서로 합하는 것을 '歲立'이라고 합니다. 그 때를 잘 살피면 매년 기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黃帝께서 물으시기를 그 해의 六氣 始終의 빠르고 늦음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岐伯이 대답하기를 밝기도 합니다. 질문이여! 甲子歲에 初氣는 天數가 水下1刻에 시작하여 87刻半에 끝나고, 二氣는 87刻6분에 시작하여 75刻에 끝나고, 三氣는 76刻에 시작하여 62刻半에 끝나고, 四氣는 62刻6분에 시작하여 50刻에 끝나고, 五氣는 51刻에 시작하여 37刻半에 끝나고, 六氣는 37刻6분에 시작하여 25刻에 끝나니, 初六의 天數라고 합니다.

乙丑年の 初氣는 天數가 26刻에 시작하여 12刻5분에 끝나고, 二氣는 12刻6분에 시작하여 水下100刻에 끝나고, 三氣는 1刻에서 시작하여 87刻半에 끝나고, 四氣는 87刻6분에 시작하여 75刻에 끝나고, 五氣는 76刻에 시작하여 62刻半에 끝나고, 六之氣는 62刻6분에 시작하여 50刻에 끝나니, 六二의 天數라고 합니다.

丙寅歲에 初氣는 天數가 51刻에 시작하여 37刻半에 끝나고, 二氣는 37刻6분에 시작하여 25刻에 끝나고, 三氣는 26刻에 시작하여 12刻半에 끝나고, 四氣는 12刻6분에 시작하여 水下100刻에 끝나고, 五氣는 1刻에 시작하여 87刻半에 끝나고, 六氣는 87刻6분에 시작하여 75刻에 끝나니, 六三의 天數라고 합니다.

丁卯歲에 初氣는 天數가 76刻에 시작하여 62刻半에 끝나고, 二氣는 62刻6분에 시작하

여 50刻에 끝나고, 三氣는 51刻에 시작하여 37刻半에 끝나고, 四氣는 37刻6분에 시작하여 25刻에 끝나고, 五氣는 26刻에 시작하여 12刻半에 끝나고, 六氣는 12刻6분에 시작하여 水下100刻에 끝나니, 六四의 天數라고 합니다.

다음 戊辰歲에 初氣는 다시 1刻에서 시작하여 항상 이와같이 끝이 없이 돌아서 다시 시작합니다.

黃帝께서 물으시기를 매년의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자세합니다. 질문이여! 해가 한 바퀴 돌 때 天氣는 1刻에서 시작하고, 두 번째 돌 때 天氣는 26刻에서 시작하며, 세 번째 돌 때 天氣는 51刻에서 시작하며, 네 번째로 돌 때 天氣는 76刻에서 시작하며, 다섯 번째 돌 때 天氣는 다시 1刻에 시작하니 이것을 一紀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寅·午·戌年과, 卯·未·亥年과, 辰·辛·子年과, 巳·酉·丑년에 歲氣가 會同하여 끝나면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第 4章. 初·中氣의 升降과 神機·氣立의 意味 및 生化의 原理

【原文】

帝曰願聞其用⁽¹⁾也하노이다.

岐伯이 曰言天者는 求⁽²⁾之本이요 言地者는 求之位요 言人者는 求之氣交이니이다

帝曰何謂氣交이니잇가

岐伯이 曰上下之位 氣交之中에 人之居也라 故로 曰天樞之上은 天氣主之하고 天樞之下는 地氣主之하며 氣交之分에 人氣從之하고 萬物由之는 此之謂也니이다

帝曰何謂初中이니잇고

岐伯이 曰初는 凡三十度而有奇요 中氣同法

이니이다

帝曰初中은 何也오

岐伯이 曰所以分天地也니이다

帝曰願卒聞之하노이다

岐伯이 曰初者는 地氣也요 中者는 天氣也
니이다

帝曰其升降은 何如오

岐伯이 曰氣之升降은 天地之更用也니이다

帝曰願聞其用은 何如오

岐伯이 曰升已而降하니 降者謂天이오 降已
而升하니 升者謂地라 天氣下降에 氣流于地
하고 地氣上升에 氣騰于天 故로 高下相召
하야 升降相因⁽³⁾ 而變作矣니이다

帝曰善타 寒濕相遘⁽⁴⁾하고 燥熱相臨⁽¹⁾하며
風火相值⁽⁵⁾하니 其有間乎⁽²⁾잇가

岐伯이 曰氣有勝復하고 勝復之作에 有德有
化 有用有變하니 變則邪氣居之하노이다

帝曰何謂邪乎아

岐伯이 曰夫物之生은 從於化하고 物之極은
由乎變하니 變化之相薄이 成敗之所由也라
故로 氣有往復하고 用有遲速하며 四者之有
而化 而變하야 風⁽⁶⁾之來也니이다

帝曰遲速往復은 風所由生이니 而化而變
故로 因盛衰之變耳라 成敗倚⁽⁷⁾伏⁽⁸⁾遊乎中은
何也오

岐伯이 曰成敗倚伏은 生乎動하고 動而不已
則變作矣니이다

帝曰有期乎잇가

岐伯이 曰不生不化 靜之期也니이다

帝曰不生不化乎잇가

岐伯이 曰出入廢 則神機化滅하고 升降息
則氣立孤危라 故로 非出入 則無以生長壯老
已하고 非升降 則無以生長收藏하니 是以
로 升降出入은 無器不有⁽³⁾라 故로 器者는
生化之字니 器散則分之하야 生化息矣라 故
로 無不出入하고 無不升降이나 化有大小하

고 期有近遠이라 四者之有 而貴常守하니
反常則災害至矣라 故로 曰無形無患이라하
니 此之謂也니이다

帝曰善타 有不生不化乎잇가

岐伯이 曰悉乎哉라 問也여 與道合同이니
惟眞人也니이다

帝曰善타

【校勘】

- 1) 燥熱相臨; 直解에는 ‘熱燥相臨’으로 되어 있다.
- 2) 其有間乎; 吳註本·類經·直解·節解·今釋에는 모두 ‘其有間乎’로 되어 있다.
- 3) 是以升降出入 無器不有; 譯解에는 이 두 구절이 없다.

【考察】

‘其有間乎’의 間은 間의 誤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吳註本·類經·直解·節解·今釋에는 모두 ‘其有間乎’로 되어 있고, 語譯은 “讀本·吳本·朝本·守校本에는 ‘其有間乎’로 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전후의 문맥상으로도 ‘差’의 의미를 지닌 ‘間’으로서 서로 차이가 있는가를 물어보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言天者求之本 言地者求之位 言人者求之氣交”에 대하여 王·馬·吳·景岳·張·姚·傑·今釋은 本은 六氣이고, 位 木火土 金水火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고, 高는 本이 太初이고, 位는 八風이라고 하였다. 高를 제외한 註釋家의 견해는 前後의 본문과 내용상 맥락이 닿는 설명이지만, 高의 견해는 문장만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 ‘太初’나 ‘八風’에 대한 高의 견해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비교가 가능하겠으나, 前後의 文意로 볼 때 高를 제외한 註釋家의 견해가

바르다고 할 수 있다.

氣交에 대한 景岳의 註釋 중에 氣交의 의미를 周易의 卦象으로 풀이한 부분이 있어서 참고할 만 하다고 여겨지므로 여기에 실는다. “내가 살펴보건데 王太僕이 ‘天樞’는 배꼽의 양쪽이니 몸의 절반이다. 팔을 펴서 하늘을 가리키면 天樞는 정확히 몸의 절반이다. 세부분으로 나누면 윗부분은 하늘에 응하고, 아랫부분은 땅에 응하고, 가운데는 氣交에 상응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다만 사람 신체의 天樞穴만을 들어 이야기 한 것이다. 『至眞要大論』에 ‘몸의 절반 이상은 하늘의 부분이니 天氣가 주관하고, 몸의 절반 이하는 땅의 부분이니 地氣가 주관한다.’라고 한 것으로 살펴보면 절반은 天樞를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王氏의 註釋이 이와같은 것이다. 그러나 『至眞要大論』에 있는 것은 본래 사람몸으로써 말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人氣從之’와 ‘萬物由之’의 두 구절이 있으니 어찌 사람의 몸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겠는가. 그 말은 비록 같으나 가리키는 것은 서로 같지 않다. 樞라는 것은 開闔하는 기틀이다. 開는 陽을 따라 윗쪽을 주관하고 闔은 陰을 따라 아랫쪽을 주관하며, 樞는 升降을 맡아 가운데를 주관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天樞穴이 몸의 중간에 있으니 天樞도 그러한 작용을 한다. 天地에 있어서는 卯酉가 上下의 가운데에 있어서 陰陽의 開闔이 되고 辰宿의 出入하는 곳이 되니 天樞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子午는 左右의 軸이고 卯酉는 上下의 樞가 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卯酉의 수평한 一線을 氣交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무릇 樞라는 것은 경계를 말하는 것이고 交는 습하여 간섭함을

말한다. 이러한 말들은 王冰이 세부분으로 나누는 것으로 설명한 것이지만 卦象으로써 이해하여야만 그 뜻을 알 수 있다. 대개 卦는 六爻가 있다. 天地否卦(≡/☷)는 上卦는 天을 상징하고 下卦는 地를 상징하며 가운데는 天樞의 경계를 상징하니 이것을 兩分하는 것으로써 말하면 가운데는 오직 하나의 線을 말하는 것이다. 만약 三分하는 것으로 말하면 二三四爻가 하나의 卦를 이루니 內卦로부터 一爻가 上升하여 땅이 하늘에 교류하는 것이고, 五四三爻가 하나의 卦를 이루면 外卦로부터 一爻가 下降하니 하늘이 땅에 교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윗쪽의 두 爻는 하늘을 주관하고 아래에 두 爻는 땅을 주관하여 모두 바뀌지 않는 것이나 가운데 있는 두 爻는 하늘도 되고 땅도 되니 이것은 眞氣가 교류하는 형상이다. 易의 繫辭에 ‘六爻의 動함은 三極의 이치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을 말한 것이다. 이로써 보면 司天과 在泉의 뜻도 역시 그러하니, 예를 들어 『至眞要大論』에 ‘初氣부터 三氣까지는 天氣가 주관하고 四氣부터 終氣까지는 地氣가 주관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上下卦의 뜻이다. 그러면 三氣와 四氣는 一歲에 있어서의 氣交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四月中으로부터 八月中까지의 四箇月, 124일간은 1년중에 있어서 기후의 변화가 가장 많으니 生物의 生長成收이 모두 이 기간에 달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氣交의 분야에 사람이 살고 만물이 말미암는다고 한 것이다.”

初中에 대하여 景岳은 다음과 같이 부언 하였으며 經文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여기에 실는다. “初中에 대하여 살펴보면 初는 시작이니 氣가 점차 旺盛해지는 것이고, 中은 旺盛한 것이니 氣가 旺盛한데

서 점차 쇠약해지는 것이다.

다만 이 편에서 말한 初中은 一步의 氣를 말한 것이므로 初는 三十度를 조금 넘고 中氣도 그러하다고 하였으나 陰陽의 氣는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初中의 日數도 일정하지 않으니 一歲으로 말하면 冬至에 氣가 北쪽에서 시작하고 夏至에는 氣가 南쪽에 있게 되니 北은 旺盛해지기 시작하는 곳이고, 南은 쇠약해지기 시작하는 곳이 되니 이는 歲氣의 初中인 것이다. 晝夜로 말하면 밤에는 陽이 坎에서 발생하기 시작하고 낮에는 陰이 離에 있게 되니 坎은 上升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離는 下降하기 시작하는 곳이다. 이것은 하루의 初中인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一月一節과 一時一刻이 모두 그렇지 않게 된다. 한달에 朔과 望이 있고, 一氣에 節과 中이 있고, 時에 子와 午가 있고, 刻에 初와 正이 있는 것은 모두 初中으로 나눈 것이다. 그러므로 初中에 밝은 사람은 陰陽을 알게 되고, 陰陽에 밝은 사람은 上下를 알게 되고, 上下에 밝은 사람은 升降을 알게 되고, 升降에 밝은 사람은 어떤 것이 天氣며, 어떤 것이 地氣며, 어떤 것이 氣交인지를 알게 되니 天地人의 盈虛消長과 死生の 數理가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升降出入에 대하여 景岳의 註釋중에는 王冰의 註釋文을 인용하여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經文을 이래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여기에 실는다. “王冰은 말하였다. 生氣를 담아 간직하는 것을 모두 生化의 器라고 하니 만질수 있는 것이다. 대개 수평방향으로 구멍이 나있는 것은 모두 出入하여 움직이는 기운이 있고, 구멍이 세로 방향으로 나있는 것은 모두 陰陽升降하는 기운이 그 사이로 往復하는 것이다. 어떻게 증명할 것

인가? 벽에 난 창문의 양면에서 들여다 보면 오고 가는 기운이 사람에게 와 닿으니 이것이 出入하는 기운이다. 陽이 勝하는 때에 우물물은 차고, 陰이 勝하는 때에 우물물은 따뜻하여 나뭇잎을 공중으로부터 떨어뜨리면 나부껴서 빨리 떨어지지 않으니 上升하는 기운이 방해하기 때문이다. 빈 관에 물을 채워서 위를 막고 늘어뜨리면 물이 흘러내리지 않으니 上升하는 氣가 없으면 下降하는 기운도 없는 것이다. 빈 항아리의 구멍에 갑자기 물을 채우려하면 들어가지 않으니 氣가 나오지 않으면 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볼 때 上升함이 없으면 下降함이 없고, 下降함이 없으면 上升함이 없으며, 나오는 것이 없으면 들어가지 않고, 들어감이 없으면 나오지 않으니, 세상의 많은 사물중에서 出入升降을 항상 되게 지켜 잃지 않으면서 化生하지 않는 것은 있지 않고, 有識하거나 無識하거나 有情하거나 無情하거나 간에 出入이 끝나고 升降이 다한 후에도 존재하는 것은 있지 않다. 그러므로 升降出入은 器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다고 하는 것이다. 宇는 天地四方을 말하고 神이 있는 形체도 역시 寓氣라고 한다. 대개 형체가 있는 사물을 모두 器라고 하는데 生化가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生化의 宇라고 한다. 만약 形器가 흩어져 없어지면 出入升降도 빌붙을 곳이 없기 때문에 각기 흩어져서 生化가 끝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天地萬物을 모두 포함하는 이치이다.”

【直譯】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六氣의 作用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岐伯이 대답하기를 天을 말하는 자는 本

을, 地를 말하는 자는 位를, 人을 말하는 자는 氣交를 推求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것이 氣交입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上·下位의 氣가 交流하는 가운데에 사람이 居處합니다. 그러므로 天樞의 以上은 天氣가, 天樞의 以下는 地氣가 주재하며, 氣交하는 경계에 人氣와 萬物이 따른다는 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初·中이 무엇입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初氣는 三十度 남짓이며, 中氣도 같습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初·中은 어떠한 것입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天氣과 地氣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다 듣기를 원합니다.

岐伯이 대답하기를 初는 地氣이고, 中은 天氣입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升降은 어떻습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氣의 升降은 天氣와 地氣가 번갈아가면서 작용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作用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岐伯이 대답하기를 上升이 끝나면 下降하니 下降하는 것을 天氣라 하고, 下降이 끝나면 上升하니 上升하는 것을 地氣라 합니다. 天氣가 下降하여 地로 흐르고, 地氣는 上升하여 天으로 오르므로 위아래의 氣가 서로 부르고, 升降이 서로 의지하여 변화가 이루어 집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잘 알겠습니다. 寒氣와 濕氣가 서로 만나고, 燥氣와 熱氣가

서로 臨하며, 風氣와 火氣가 서로 대치하는데 그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六氣에는 勝復이 있고, 勝復하는데에 德·化·用·變이 있으니 變이 일어나면 邪氣가 이릅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것이 邪氣입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무릇 萬物의 發生은 化에 말미암고, 萬物의 極은 變에 말미암으니 變과 化가 서로 섞이는 것이 成敗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氣에는 往과 復이 있고, 用에는 遲와 速이 있으며, 이들 네가지가 있어서 化하고 變하여 風이 초래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遲速往復으로 인하여 風이 생겨나니 化하고 變하므로, 이로 인하여 盛衰의 변화가 따릅니다. 성패가 서로 인연이 되어 일어나고 가라앉는 것이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성패가 서로 인연이 되어 일어나고 가라앉는 것은 육기의 운동에서 생기고, 운동을 그치지 않으므로 변화가 생겨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動靜의 때가 있습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生하지도 化하지도 않을 때가 靜의 시기입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生하지도 化하지도 않습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出入이 멈추면 神機가 없어지게 되고, 升降이 멈추면 氣立이 위태로워 집니다. 그러므로 出入이 아니면 生·長·壯·老·死가 없고, 升降이 아니면 生·長·化·收·藏이 없으니, 이리므로 升·降·出·入은 어떤 器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器는 生化의 집이 되니 器가

散失되면 분리되어 生化가 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出入하지 않는 것이 없고 升降하지 않는 것이 없으나 化에는 크고 작음이 있고, 時期에는 멀고 가까움이 있습니다. 네가지에는 정상적인 상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니 정상에 어긋나면 災害가 이므로 形體가 없으면 근심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잘 알겠습니다. 生하지도 化하지도 않는 것이 있습니까?

岐伯이 대답하기를 자세하군요 질문이여! 道와 합치된 것이니 眞人 뿐입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잘 알겠습니다.

IV. 總括 및 結語

「六微旨大論」에 대한 각 註釋家의 註釋을 比較研究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

「六微旨大論」은 王冰이 《素問》을 24권으로 編述할 때에 「天元紀大論」, 「五運行大論」, 「氣交變大論」, 「五常政大論」, 「六元正紀大論」, 「至眞要大論」과 함께 補入된 것으로, 이들을 「運氣七編」이라고 부른다.

本篇은 司天·在泉과 左右間氣가 圖表.16과 같다고 하였다.

圖表. 3 司天·在泉·左右間氣

太陽	厥陰	少陰	太陰	少陽	陽明	太陽	厥陰	少陰	太陰	少陽
左間	司天	右間	右間	在泉	左間					
	左間	司天	右間	右間	在泉	左間				
		左間	司天	右間	右間	在泉	左間			
			左間	司天	右間	右間	在泉	左間		
				左間	司天	右間	右間	在泉	左間	
				左間	司天	右間	右間	在泉	左間	

本篇은 각 六氣의 標氣·本氣와 標氣와 表裏관계에 있는 中氣를 밝혔으며, 地의 六步를 春分節을 기준으로 설명하였는데, 각步를 다스리는 六氣는 厥陰風木·少陰君火·少陽相火·太陰濕土·陽明燥金·太陽寒水의 순서이다. 그리고 하나의 六氣가 너무 亢盛하게 되면 이를 抑制하는 復氣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歲運과 年支의 五行方位屬性이 같은 해를 歲會, 司天과 歲運이 같은 해를 天符, 歲運과 司天과 年支의 五行屬性이 모두 동일한 해를 太一天符라 하였다. 그리고 天氣와 地氣의 交合을 의미하는 六十甲子로서 매 해를 규정하고, 매 해의 六氣가 활동하는 시

각을 나열함으로써 활동시각이 같아지는 週期는 4년이며, 따라서 寅午戌·卯未亥·辰申子·巳酉丑歲에 六氣의 活動時刻이 각각 같음을 설명하였다.

六氣중 하나가 작용하는 기간을 步라 하였고, 步에 地氣가 작용하는 初氣와 天氣가 작용하는 中氣의 구별이 있으며, 天氣와 地氣가 번갈아가며 升降하여 勝復하는 과정중에 德·化·用·變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六氣의 往復遲速 과정이 그치지 않아서 邪氣가 발생하고, 그 과정중에 生成과 衰敗가 일어나고 가라앉는다고 하였으며, 神機와 氣立이 모두 하나의 器로서 升降出入을 통해 존재할 수 있고, 이들에게 大小遠近의

차이가 있지만 일정하게 升降出入을 유지하는 것이 自然의 理致와 부합한다고 하였다.

1章에서 '六六之節'의 '六六'은 六氣와 三陰三陽을 가리킨다. 2章에서 '非其位則邪當其位則正'의 '位'는 '方位'가 아니라 '役割'을 의미한다. 3章에서 '其有間乎'는 '其有間乎'이며, '間'은 '差異', '關係'의 의미이다.

以上과 같이 「六微旨大論」은 醫學의 養生·生理·病理·診斷·藥理·鍼灸방면에 기초적인 술어로 사용되어지는 六氣·勝復·升降·出入·往復·遲速·神機·氣立 등에 대한 정의와, 標本中氣·亢害承制·升降出入 등의 基礎理論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그 하나만으로도 醫學의으로 깊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으므로 本 研究에 이어서 각각의 내용에 대한 個別的이고 深層的인 研究가 進行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參考文獻

1. 王冰, 《黃帝內經素問》, 珍傲宋版印, 中華書局, 1972.
2. 張介賓, 《原本類經》, 大星文化社, 서울, 1982.
3. 任應秋, 《黃帝內經章句索引》,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6.
4. 程士德, 《素問注釋匯粹》,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5. 朴昞 譯, 《國譯類經》, 大星文化社, 서울, 1984.
6. 林億, 《補注黃帝內經素問》, 中華書局, 台北, 1966.
7. 郭霽春, 《黃帝內經素問校注語譯》,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81.
8. 河北醫學院, 《黃帝內經素問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9. 馬蒔·張志聰,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 台聯國風出版社, 台北, 1977.
10. 吳崑, 《黃帝內經素問吳註》, 山東科學技術出版社, 北京, 1983.
11. 高世栻, 《黃帝內經素問直解》, 科學技術文獻出版社, 北京, 1985.
12. 北京中醫學院, 《內經釋義》, 上海科學技術出版社, 上海, 1982.
13. 王冰, 《重廣補註黃帝內經素問》, 旋風出版社, 台北, 1979.
14.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大一書局, 台北, 1977.
15. 姚止庵撰, 《素問經注節解》,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3.
16. 王琦 外 四人編著, 《黃帝內經素問今釋》, 成輔社, 서울, 1983.
17. 黃元禦撰, 《黃元禦醫書十種(上)素問懸解》,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18. 劉之謙外 二人編著, 《黃帝內經素問吳註評釋》,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88.
19. 李中梓原輯, 《內經知要》, 新文豐出版公司.
20. 姜支錫, 「素問·八正神明論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익산, 1994.
21. 金興濟, 「素問·六節藏象論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익산, 1994.
22. 龍伯堅著 白貞義·崔一凡共譯, 《黃帝內經概論》, 논장, 서울, 1990.
23. 梁會天, 「素問·五常政大論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익산, 1998.

參考辭典類

1. 張三植 編著, 《大漢韓辭典》, 進賢書館,

- 서울, 1981.
2. 民衆書館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서울, 1984.
 3. 中醫研究院, 《中醫名詞述語辭典》, 民衆書林, 서울, 1984.
 4.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高文社, 서울, 1970.
 5.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中國文化大學出版部, 台北, 1985.
 6. 許世旭, 《새中國辭典》, 徵文出版社, 서울, 1978.
 7. 梁柱東, 《현대국어대사전》, 一中堂, 서울, 1980.
 8. 한국어사전편찬회, 《한국어대사전》, 玄文社, 서울, 1980.
 9. 東亞國語辭典研究會, 《東亞 새국어사전》, 東亞出版社, 서울, 1992.
 10. 金赫濟 金星元編著, 《漢韓大字典》, 明文堂, 서울, 1984.
 11. 金賢濟 洪元植共譯, 《漢醫學辭典》, 成輔社, 서울, 1983.
 12.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辭典》, 東洋醫學研究員出版部, 서울, 1985.
 13. 李熙昇編著, 《國語大辭典》, 民衆書林, 서울, 1990.
 14. 廣東中醫學院編 黃鍾律外一人譯, 《漢醫學名詞述語辭典》, 논장, 서울, 1987.
 15. 張登本 武長春主編, 《內經辭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0.
 16.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辭典(上下)》,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91.
 17. 中醫大辭典編輯委員會編, 《中醫大辭典》, 人民衛生出版社, 북경, 1982.
 18. 高大民族文化研究所編, 《中韓辭典》, 高大民族文化研究所, 서울, 1989.
 19. 中醫辭典編纂委員會, 《簡明中醫辭典》, 香港, 1979.